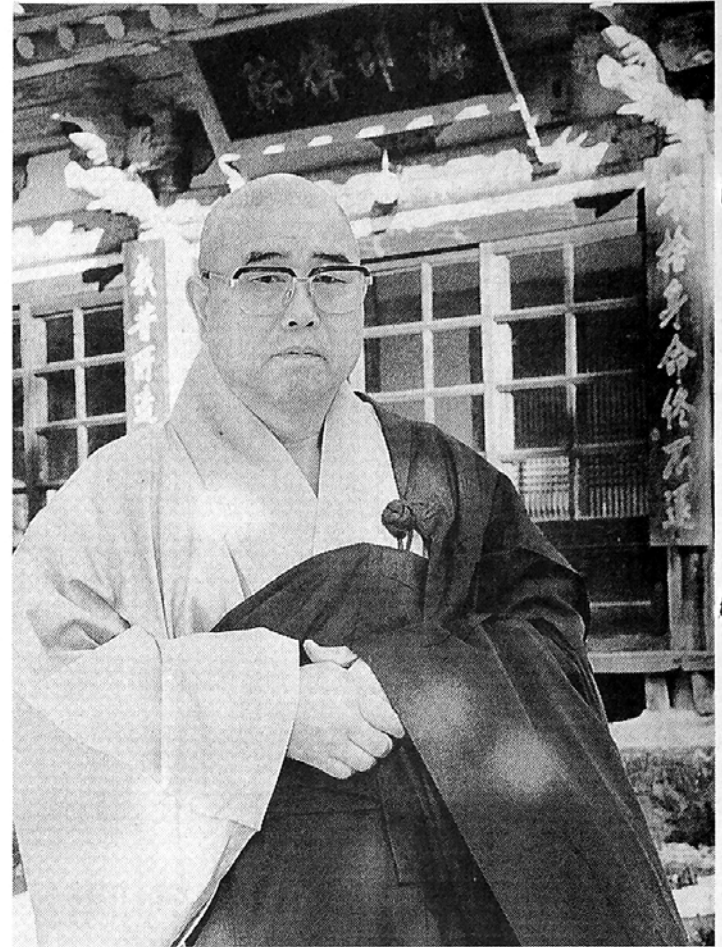


큰 스님 수행한담

“생각의 뿌리 잘 다스리면

고봉스님 (해인사 선덕)



- 1931년 출주 생
- 18세때 해인사 입산
- 영월스님을 은사로 득도
- 인곡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 해인사 선원장 역임
- 조계종 교무부장·중앙종회의원 역임
- 현재 해인사 극락전에 주석

경우를 흔히 봅니다. 주체하기 힘들 정도로, 천산 압박이라도 걸 것 같은 초발심때의 마음을 지속해야 합니다. 행자생활중에 열불을 익히라고 하는데 하기가 싫습니다. 오로지 선법에 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스님노릇 제대로 하려면 열불도 알아야 된다고 해서 마지막에 열불도 배우고 강원에도 들어갔습니다. 감사스님께서 천수경을 가르쳐주며 의뢰오라고 하는데 금방 알기가 됐습니다. 반야심경을 하루만에 다 외워버리니 스님이 어디서 중노릇하다가 왔느냐고 물더군요. 해인사에 오기전 고향에서 사자까지 익혔던 터라 문리는 어느정도 터져 있었습니다. 일제 암흑기를 막 벗어나 6·25전쟁을 치러 했던 당시의 한국사회는 암담하고 배고픈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님들의 눈빛은 푸르고 성성하게 살아 있었습

“사소한 일 하나까지도 인연따라 일어나지 않는게 없으니 결국 내 마음이 지어낸 일이지요”

니다. 다른 잡생각이 생길 여지가 거의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옷한벌에 일단 사 일표의 두타행이 저절로 되던 시절,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마음은 넉넉했습니다. 기한발도심(飢寒發道心)이라고 했어요. 출교 배고파야 발심이 된다는 얘깁니다. 문명이 발달하여 편리해질수록 도덕이 힘들어집니다. 다 해준다고 되게 아닙니다. 절실해야 공부가 됩니다.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화두가 터져 나오지요. 근본자세가 잘못되면 기를 때론 공부, 남보기에 접점은 공부밖에 안됩니다. 6·25전쟁 당시 은사이신 영월스님과 함

계 해인사를 떠나 양산 통도사, 언양 석남사, 청도 운문사 등지를 전전했습니다. 마지막 정착한 곳이 팔공산 파계사 성전이었어요. 전장의 와중이었는데도 공부 가 참 잘 됐어요. 거기서는 화두로 밥을 먹고 화두로 길을 걷고 화두로 잠을 자는 생활이 지속됐어요. 그냥 대중 후다닥 해 지우는게 없었습니다. 매사에 화두가 살아 있는 생활이 계속됐지요. 그러던 어느날 가슴에 맺힌 것이 확 트이는데 모든 미온 감정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계속 공부를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전정이 끝나고 해인사로 돌아가 절살림을 맡는 바람

에 공부를 제대로 끝까지 못한 것이 지금도 안타깝습니다. 백련암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 옛날 조선시대 한적스님께서 벽곡(辟穀·곡식 대신 술·밤 따위를 날것으로 조금씩 먹고 살)하시며 수행하신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토굴을 짓고 2~3년간 살았습니다. 진주 응석사 토굴에서도 몇개월 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1종식에 정좌불의를 하며 용맹정진을 했더랬습니다. 그때 느낀 것이 공부에는 자신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현실에 대한 집착을 그대로 두는 발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발심하려면 먼저 나라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있음으로 명에 있고, 돈이 있고, 여자가 있습니다. 나라는 근본명 내지 착각을 벗어나 불성으로 안내하는 길잡이가 바로 화두입니다. 화두는 곧 생명체입니다. 화두를 드는 순간, 잡념망상이 다 떨어지는 순간은 살아있는 상태, 화두를 놓치는 순간은 곧 무명속입니다. 현실에 집착하여 분별심을 일으키는 곧 역경계에 걸리는 것이니 이는 무명입니다. 화두를 드는 순간은 이

다시 푸는 경서

虛雲和尚의 참선요지 23

寒山大士頌云
한산대사송운
高高山上 四顧無邊
고고산정상 사곡무변
靜坐無人識 孤月照寒泉
정좌無人식 고월조한천
泉中日月無 是在青天
천중日月월 是在青天
천중차무월 월시제청천
此一曲歌 歌中不是禪
은차일곡가 가중부시선

也星址喝藥 打開瓮
아시차갈등 타한차
凡有言說 都無實義
범유언설 도무실의
古德接人 非尋常語
고덕접인 비방착할 나유저안나색
不過今比昔比 不得不強作標月之指
불과금비석비 부득불강작표월지지
諸位同參呀 究竟指是誰月是誰參
제위동참야 구경지시수월시수 참

한산대사가 읊기를
높디 높은 산 봉우리에서 사방 둘러
보니 끝간데 없으려
홀로 앉음에 아는 이 없고 외론 달
동두렷이 한천에 비치네
샘 가운데 원래 달이 없거니 달은 절
로 청천에 걸렸어라
한가락 노래를 불러보나니 노래가락
이대로 선이 아닌가

이제 나는 한 커다란 언덕에 대해 설
했노라.
그러나 이것은 념를 자르고 갈립길
을 내는 것이다.
무릇 모든 언설엔 실다운 뜻이 없다.
옛 스님들이 사람들을 제정할때 방방
이가 아니면 함을 했으니 어찌 나처럼
너절할 모양으로 늘어 놓고자 했겠는
가.

首二句 就是說無常真常 不屬一切
수이구 취시설독로진상 불속일체
盡大地光放大地 無絲毫障礙
전대지광교교지 무사호장애
次四句 是說眞如妙體 凡夫固不能識
차사구 시설진여묘체 범부고불능식
三出處佛也找不到我的處所 故曰無人識
삼세제불야주부도아적처소 고일무인식

부득이 해서 억지로나마 달을 가리키
는 손가락을 짓지 않을 수 없었어라.
그대들은 이 뜻을 아는가.
구경에 손가락은 누구며 달은 누구이
겠는가.
참구하라
〈警語〉心即是佛 佛即是覺
경어 심즉시불 불즉시각

“손가락 달로 알까 염려하여 일깨우니
손가락은 누구며 달은 누구겠는가”

孤月照寒泉三句 是他老人家方便 譬如
고월조한천삼구 시타노인가방편 비여
道境境弄
저개경계
最後兩句 怕人認作日月
최후양구 파인인지지월
故特別提醒我們 凡此言說 都不是禪呀
고특별제성어문 범차언설 도부시선아

此一覺性 生佛平等 無有差別
차일각성 생불평등 무유차별
空寂而了無一物 不受一法無可修證
공적이로무일물 불수일법무가수증
靈明而具足萬德 妙用恒沙 不假修證
영명이구족만덕 묘용항사 불가수증
只因眾生迷生死 經歷長劫 貪嗔癡愛
지인중생미생사 경력장겁 탐진치애
妄想執著 染著最深 不得已而說說說
망상집착 염오이심 부득이이설수설중

첫 두 구는 홀로 드러나 함으로 항상
하여 어디에도 속하지 아니하여
은 대지가 밝아서 터럭만큼의 장애가
없음을 말한 것이다.

마음이 곧 부처요 부처는 곧 깨달음
이다.
이 깨달은 성품은 중생과 부처가 평
등하여 차별이 없다.

다음 네구는 진여묘체를 설한 것이니
범부는 애당초 알 수 없고

고요하되 한 물건도 아니요 한 법도
받지 아니하니 수행할 수도 증득할 수
도 없다.

외론 달 한천에 비친다는 삼구는 한
산노인의 방편이니 그 나름의 경계를
비유한 것이다.

신령스레 밝아 만덕이 구족하고 그
묘용은 항하의 모래알같이 많으나 수행
과 증득을 빌리지 아니한다.

최후의 두구는 사람들이 손가락을 달
로 알까 염려하여 특별히 우리들을 일깨
워 주려는 것이다.

다만 중생이 생사에 미혹하고 빠져서
역경토록 탐욕 진에 우치 애착 같은 망
상에 집착하여 깊이 더럽혀졌으니 부
득이 수행에 대해 말하고 증득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就是我方說了一大堆
취시야방제설일대퇴

龍眼

생활 속의 불교 107

주인을 제쳐두고 행세하는 시자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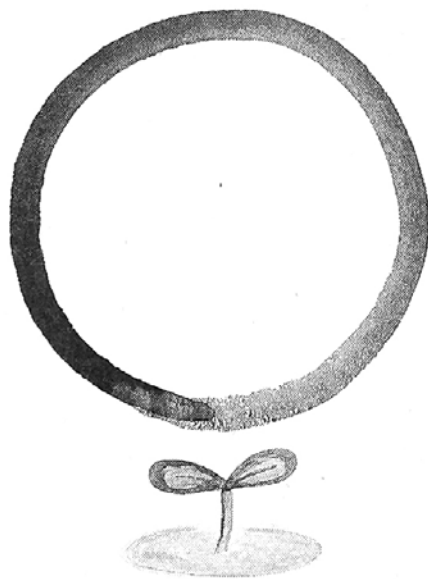
“참 나는 만법의 근원이다. 나라에 임금이 있
어 신하가 그 명을 따라 모든 일을 맡아 처리
하듯이 참 내가 있음으로써 오관을 통해 움직
이는 내가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보이는 나는
안 보이는 나의 신하로서, 시자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거짓 나를 나로 알지 말
고 참 나를 발견하려는 것이요, 모든 것을 참
나인 주인공에 일임하려는 것이다. 시자는 시
지일 뿐이니 주인을 믿고 따르면 그뿐. 주인을
제쳐두고 제가 나서서 주인 행세를 하는 한 고
통과 액난은 끊이지 않고 나를 따르게 마련이
다.”

려 하지 않는다.

어느 누구라도 병을 싫어하고 죽음을
두려워 한다. 늙는 것을 즐겁다고
하는 사람도 없다. 그렇다고 그걸 피할
수도 없다. 태어난 것은 다 늙고 마침
내는 죽는다. 고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구나 사망선고를 받아 놓고 있다. 삶
이란 매 순간마다 죽음을 향해 나아가
는 발걸음에 불과하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내게만 찾아 오는 양 두려워 한
다. 이 순간 지구 상에서 수천 수만이
죽는데도 그것을 당연지사로 받아들이

깨달은 이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
는다. 그는 이미 죽어보았기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내가 죽어 참나로
거듭난 사람이요 죽음의 실체를 아는
사람이기에 그렇다.
우리가 노·병·사의 두려움에서 벗
어 나려면 깨달은 이 처럼 참 나로 살
아야 한다. 그 길 밖에 없다. 시자(侍
者)의 삶에서 벗어나 주인의 삶을 이어
가야 한다. 주인의 삶은 언제나 창조
의 불꽃으로 타오르는 삶이요 영원한 생
명으로 가득찬 삶이다. 거기엔 노·
병·사 따위가 불을 자리조차 없다.
그래서 가르침은 거짓 나를 버리고
참 나를 발견해 참 나로 살라고 강조한
다.

이왕에 한 세상 살다 가는 것인데 주
인으로 살아야지 시자로 살아야 할 까
닭은 무엇인가. 임금이요 살아야지 신
하로 살 건 뭐가. 노·병·사가 붙지
않는 자리에서 멍멍거리며 살 것이지



싫다면서, 두렵다면서 노·병·사를 꺼
안고 살 건 뭐가.
그럼에도 우리들은 시자의 삶을 고집
한다.어리석게도 거기에 집착한다. 고통
스럽다, 괴롭다 하면서도 스스로 시자
이기를 원한다. 모르기 때문이다. 주인
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이
다.

참 나인 주인을 만나 주인으로 살려
면 버려야 한다. 놓아야 한다. 그리고
믿어야 한다. 나, 내 것이다 하는 생
각 좋다 싫다하는 생각을 놓아야 한다.
그런 분별심과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죽기를 각오한다면
죽음에 대한 공포는 사라진다. 생에 대
한 집착을 버림으로써 죽음이 발 불일
곳을 잃듯이 노·병·사에 대한 분별
을 놓아 버리면 삶은 그 순간부터 시자
를 부리는 주인의 삶이 된다.

나, 주인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안다는 것은 깨닫기
전이면 어느 누구라도 완전한 삶이 아
니다. 고작해야 글줄이나 조금 읽었고
한 줄 밖에 안되는 경험을 통해 이 거
대한 세계의 한 모퉁이, 좁쌀만한 부분
을 아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우리
는 마치 이 세상을 다 아는 양 제 스스
로 관념의 벽을 쌓고 그 안에 갇혀산
다. 주인을 믿기는 커녕 시자로서도 아
주 어리석은 시자임을 자처하며 산다.
그러기에 고통과 액난이 끊이지 않고
내 뒤를 따라 다니는 것이다.

참 나인 주인을 무조건 믿는 것만이
나를 해방시켜 준다. 무조건적인 믿음
은 맹목(盲目)이 아니라 스승의 가르침
을 따라 실천하겠다는 의지이다.
배우려하지 않는 제자에겐 스승도
가르칠 게 없다.

그러나 우리는 시자인 이 거짓 나를
참 나로 알고 있기 때문에 놓으려고도
버리려고도 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협찬 : 김희성